

동남아시아 지역성에 대한 인식론적 대비*

박장식**

- I. 머리말
- II. 인식 주체의 관점의 차이
- III. 외부문명과 내부세계
- IV. 고유성과 관련성
- V. 맺는 글

I. 머리말

동남아시아라는 지역단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10개의 국가를 막연히 통칭하는 의미 없는 집합체인지, 자연적인 지리적 경계에 따른 방위적 개념인지, 그렇지 않다면, 숙명적인 단위성을 내포하는 고유의 논리를 지닌 지역성에 의해 설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위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은 그리 쉽지 않다. 어쩌면, 동남아시아란 용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소모적인 사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우선 이 지역은 민족, 언어, 정치·경제, 사회구조 등 어떤 측면에서 응시해봐도 일견 공통되는 지역성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지역단위성에 대한 심각한 고뇌를 거듭하는 모습을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과

이른바 지역전문가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사실도 공허한 동남아시아연구(학)를 낳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사실 지역이라는 것은 어쩌면 환상일지도 모르겠지만(Luhman 1995), 그 환상 자체는 현실적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는 경험적인 경계가 반드시 존재한다. 환상 또는 상상력이라는 현실의 경험에 근거하여 지역이 구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의 대상인 지역은 과연 무엇인가? 지역은 일반적으로 공간단위로서 고려된다. 그러나 그 공간을 어떻게 나누어 보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역의 개념은 달라진다. 우선, 생태공간이라 할 수 있는 자연환경에 주목할 것인지, 또는 활동 주체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자연환경과 인간이 어우러져 발생하는 현상·시스템을 분석할 것인지에 따라 그 개념은 판이하게 다르다(應地 1996).

무엇을 인식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곧 그 대상이 정말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존재론과도 연결된다. 대상 지역이 진정 존재한다면, 지역개념은 실제 세계의 충실한 개념적 복사라고 할 수 있다. 실재하는 지역을 적절히 밝혀내는 것은 연구자의 당연한 역할이다. 이 때의 지역은 하나의 통합된 전체(entity)로서 내재적인 질서를 지닌 확고한 영역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개념은, 특히 생태공간의 구획, 분절화에 있어서 강력히 표출된다. 하지만 지역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 경계를 명확히 그으려는 경우는 적다. 경계를 긋는다 하더라도 함의를 도출할 만한 경계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그러나 지역이란 세계관을 공유하는 전체라는 세계단위에 의한 구분으로 사람·현상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高谷 1993; 1996, 矢野 1999).

이러한 지역의 실재(實在)개념에 대해, 지역은 조작(操作)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지역이란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구획한 공간이며, 허구라고 본다. 실제로는 국가나 국가연합이며, 지역의 내용이 실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기껏해야 중복적, 중층적인 상호관계만이 지역을 구성한다고 믿는다(山影 1994). 이것은 현상,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지역성의 공간적·생태적 기반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 지역개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시간축의 문제이다. 지역단위는 과

연 영원 불멸한 것인가? 환경변화, 사회변동, 역사적 전개를 보면, 지역이란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역구분의 가장 명확한 기준인 자연환경도 지구온난화, 삼림파괴 등이 현재에도 진행되듯이 변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브로델(F. Braudel)의 용어를 빌리자면 지속적인 구조(Braudel 1995)로서의 지역, 고유성을 지속시키는 지역 개념도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남아시아(이하 동남아)는 과연 실재하는가, 아니면 자의적, 임의적인 해석으로 조작된 허구인 것인가? 실재하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관망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과연 그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는 전체로서 인식된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하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가능한 대답을 찾아보는데 이 글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이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무의식적으로 ‘동남아시아’라는 용어를 남발하며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새겨보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지극히 좁은 시야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국가 경계를 벗어나는 현상들(민족문제, 문화적 공통성, 경제적 교류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국민국가의 테두리를 분석의 절대적인 잣대로 간주하고 있다.

상호 모순되는 듯한 두 가지의 이유를 빌미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동남아 인식에 사용되어왔던 논점들을 중심으로 동남아에 내포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인식대상인 동남아가 전체로서 혹은 부분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대조적으로 살펴보아, 그 성립 타당성의 논리를 고찰해보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인식 주체의 관점의 차이

동남아를 인식의 대상으로 놓고자 한다면, 그것은 인식 주체의 관심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인식 주체의 이익 정도에 따라 대상의 해석도 사뭇 다양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동남아를 분석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시도는 인식 주체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당히 자의적으로 구획하고 해석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동남아를 둘러싸고 대비되는 지역인식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인식의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동남아의 근대사를 7명의 역사가자가 자율사(autonomous history)적 관점에서 저술하였던 명저 『동남아시아를 찾아서』의 서문(Steinberg 1987)에는 이러한 인식 주체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문에 인용되어 있는 필리핀 막탄(Mactan) 섬의 두 개의 기념비는 각각 필리핀을 발견한 마젤란과 이에 대항한 원주민의 족장 라푸라푸를 칭송하고 있다.

“이 곳에서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1521년 4월 27일 막탄 섬의 족장, 라푸라푸의 전사들과 교전 중에 사망하였다. 마젤란 선단의 하나인 빅토리아 호는 <중략> 마침내 지구를 최초로 한바퀴 횡단하는 대업을 완성하였다”(Steinberg 1987: ix).

“1521년 4월 27일 여기 이자리에서 라푸라푸와 그의 전사들이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이끄는 스페인 침입자들을 격퇴시켰다. 그리하여 라푸라푸는 유럽의 침략을 물리친 최초의 필리핀인이 되었다”(Steinberg 1987:ix).

이 기념비를 읽고 있노라면, 우리의 생각은 대단히 혼란스러워진다. 마젤란의 필리핀 발견은 이후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하게 된 동기를 가져다 준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사건이지만, 한편 마젤란을 죽음으로 이끈 라푸라푸의 저항은 외세의 침략에 반발하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필리핀인의 의지의 발로로 여겨지고 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인식 주체에 따라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예이다.

뒤에서도 언급하게 되겠지만, '인도화'(Indianization)는 의견상으로 인도적인 모습을 띤 국가를 동남아에 성립시켰던 것만은 틀림없다. 이러한 국가들을 인도 학자들은 '인도 식민지'(Indian colony)라고도 부른다. 그들에게 있어서 동남아는 한낱 '대인도세계'의 테두리 속에 자리잡은 작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동남아 인들은 인도문화 속에서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적당한 요소만을 선택하여 수용했다는 근거가 드러나며, 자기 발전적인 형태로 변용 시켜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문화의 수용자들인 동남아인의 주체성은 정말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동남아는 인도 문화로 성립되어 지금까지 독자적인 고유한 문화 없이 인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래서 동남아라고 하면,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유럽 문명이 뒤섞여 있는 정체성이 희박한 지역으로 간단히 간주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지역연구에 있어서 인식 주체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 인식은 주체의 일방적인 해석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민족 명칭에서도 이러한 인식 주체의 입장에 따른 침예한 대립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동남아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 중에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마오(Miao, 苗)족은 중국에 약 150만명, 베트남, 라오스, 태국에 50~60만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사실 '마오'라는 말은 라오스인들이 소수민족인 호몽(Hmong)족을 멸시하여 부르는 비칭이다(三谷 1984:68). 호몽족은 라오스의 다수민족인 라오족의 용어를 버리고 스스로를 '호몽'¹⁾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인식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라오족의 관점에서 비하되는 종속관계를 탈피하려는 소수민족의 강한 주체적 입장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다.

보르네오 섬은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3국의 영토로 분할되어 있다. 여기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말레이인, 다약(Dayak)족, 화인(華人)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말레이인이란 주로 연안지대에 거주하고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이슬람교도를 가리킨다. 반면, 다약족이란 네덜란드가

1) 마오족의 자칭인 '호몽'족이란 민족 명칭은 모든 마오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호몽족으로 불려지길 원하는 마오족은 라오스, 태국 등지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일부 마오족에게만 국한된다.

사용했던 원시말레이계(Proto Malay)민족의 총칭인 것이다. 원래 ‘다약’이란 말은 ‘내륙’ 또는 ‘내륙인’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연안의 말레이인들이 ‘촌스러운’, ‘촌사람’이란 의미의 비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 곳에 먼저 정착한 민족이 자신들을 ‘다약’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없다(上智大學アジア文化研究所 1992:92). 이 섬의 다약족은 타 민족에 의한 인식의 대상이 아닌 그 곳의 인식 주체로 인정받길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동남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동남아가 일련의 국민국가들(nation-states)로 구체화됨으로써 이 용어의 경계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는 가능해졌지만, 이로 인하여 동남아를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실체로 만들어 내는데 요구되는 전체론적 시각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과연 동남아에 대한 명칭²⁾에서 비롯되는 인식 대상에 대한 개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들은 동남아를 인식하는 주체의 극명한 대비를 잘 보여 준다.

우선 비교적 초기의 용어로서 인도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Further India’, ‘Greater India’나 중국에서 동남아를 지칭하였던 ‘남양(南洋)’³⁾은 단순한 방위·위치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고대 인도의 기록에 등장하는 ‘Suvannabhumi’(황금의 땅)도 오늘날의 동남아를 가리키기 보다는 미얀마 남부 지역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념은 동남아를 하나의 지역단위로 간주하는 적극적 의미보다는 인지주체의 입장에서 보어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남아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분산적이며 애매하다. 다시 말하면, 동서양의 교류 초기에는 동남아에 대한 개념은 결코 어떠한 생태적 자연환경이나 활동주체인 인간에 초점을 두고 구획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동남아가 서양에 점차 알려지면서 이 지역의 문화나 사회구조를

- 2) 동남아의 명칭과 관련하여 그 역사적 배경 및 의미에 대한 자세한 것은 Emmerson(1984)을 참조할 것.
- 3) 중국어의 南洋이란 절강성(浙江省) 이남의 연해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 후 지금의 동남아시아를 가리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지만, 중국인은 오히려 南海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南洋은 다시 남지나해를 중심으로 그 동쪽을 東洋, 서쪽을 西洋으로 구분한다(矢野 1990:22).

연구하기 시작한 학자들, 특히 고고학이나 인류학자들이 인도와 중국 문명의 영향이 깊은 문화적 공통성에 유의하여 동남아를 통칭할 수 있는 지역 명칭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이때 생겨난 용어들인 'Indosinesia',⁴⁾ 'Cochinchina', 'Indochina' 등은 구체적인 지역적 경계를 갖는 학문적 조어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이 때부터 동남아는 하나의 지역단위로 외부인들에게 자리잡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Indochina'라는 용어는 인도와 중국의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문명사적인 측면과 지리적 위치를 중요시하는 인접성의 논리를 강조한 프랑스 지리학자 말트-브뤽(Malte-Brun)의 조어로 동남아의 특성을 거대한 두 문명 세계의 협곡(峽谷)으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동남아의 문화적 본질을 인도화, 중국화로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용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중국도 명대(明代)말, 청대(清代)에 이르러 이전의 단순한 방위, 지리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교역, 조공, 이민을 둘러싼 지역적 인식을 기초로 한 동남아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남양(南洋)은 구체적으로 동남아의 대륙부를, '동남양(東南洋)은 도서부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원대(元代) 이전의 '남해(南海) 또는 '서남양(西南海)에 해당하는 지역이 '동남양'으로 구체화되어 갔다(浜下, 1997:46). 그러나 대륙부의 베트남과 미얀마는 '남양'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베트남(安南, 占城)은 중국의 지배 영역에 속해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미얀마(緬甸)는 중국과 해역관계보다는 육로를 통한 접촉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실 현재의 '동남아시아'라는 말에 가장 근접하는 영어 표현은 1839년 미국인 목사인 말콤(Howard Malcom)의 『Travels in South-Eastern Asia』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 기행문에서 '동남아시아'라는 용어가 지니는 의미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1942년 빈 출신으로 미국에 이민을 갔던 하이네-겔더른(Heine-Geldern)이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동남아시아의 국가와 왕권의 개념』(Conceptions of State and Kingship in Southeast Asia)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동남아시아'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자연스러운 명칭으로 자리잡게 되

4) 인도를 나타내는 'Indo-', 중국을 가리키는 '-sin-', 인도네시아·필리핀 군도를 가리키는 '-esia'가 결합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Emmerson(1984: 각주5)와 Purcell(1951: xvi)을 참조할 것.

었다. 1940년대에 들어와서 현재의 ‘동남아시아’라는 말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동남아를 인식하려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착 용어 정착에 기여한 것은 다름 아닌 세계 강대국의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이었다. 바로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동남아시아령부(South-East Asia Command)가 지금의 스리랑카에 설치됨으로써 이제 ‘동남아시아’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도 널리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지금의 동남아와의 경계와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비로소 현대 동남아 세계가 성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동남아에 대한 명칭의 흐름을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적 개념도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지역 단위성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인식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래의 <그림 1>은 1995년 호주 외무부 장관이었던 에반스(Gareth Evans)가 브루나이에서 개최되었던 연례 아세안 외무부장관 회담 때에 1996년 방콕에서 열릴 제 1차 아시아유럽연합정상회담(Asia-Europe Economic Meeting, ASEM)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참가를 아세안 국가들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던 한 장의 지도이다(Hiebert 1995:26). 흥미로운 것은 이 지도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완벽한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보여지는 것이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동남아에 인접한 완벽한 동남아 세계의 일원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지도는 동남아 세계의 과거와 미래의 형성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와 유사한 제안으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Mahathir) 수상의 발상인 동아시아경제회의(East Asian Economic Caucus)도 아세안과 동북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경제블록 구상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시키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미국의 절대적인 반대 입장 때문에 출범하지 못하였지만, 이 역시 향후 동남아의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여길 수 있다. 즉, 지역 단위성은 시간과 공간의 축 사이에서 그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그림 7> 에반스의 동아시아 구도

III. 외부문명과 내부세계

동남아의 문화적 표상은 매우 다양하다. 이런 다양성이란 하나의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 형태, 문화전통이 혼합되어 있는 것과 다른 문화가 모자이크처럼 인접하여 모여 있는 것, 2가지를 의미한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같은 문화형태에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과 문화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동남아의 문화를 고려할 때, 외부문명과 내부세계라는 개념은 매우 편리한 도구이다.⁵⁾ 동남아 외부지역에서 성

5) 동남아를 '외부문명'과 '내부세계'라는 논리로 분석하는 관점에 관한 자세한 것은 矢野(1990:1-30)를 참조할 것. 矢野는 동남아가 하나의 세계단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존재론적 설명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된 '외부문명'이 어떠한 타율적인 사회형성의 역할을 매개로 하여 이 지역에 고유한 '내부세계'를 형성하였다고 하는 견해를 내세우

림·발전하였던 문명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거나 그 문명의 주체가 동남아를 정복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동남아의 문명사적 측면에서 외부문명과 관련된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그래서 동남아를 인식하는 전제 조건으로 외부문명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하여 언제나 동남아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동남아라는 전체론적 시각(holism)을 흐뜨리는 것은 아니었다.

인도문명(힌두문명, 불교문명), 중국문명, 이슬람문명, 유럽문명이라는 세계적 문명이 동남아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외부문명은 마치 동남아의 고유한 실과 천이라는 재료에 새겨지는 무늬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동남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옷을 만들어 입는다. 어디까지나 무늬에 새겨지는 실과 천은 동남아의 고유의 것이다. 이처럼 동남아 세계에는 기층문화를 비롯한 고유의 지역성을 갖춘 내부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문명과 내부세계의 대비는 이 지역의 특질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외부문명의 양상

동남아 세계의 형성을 주도했던 문명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서 이 장을 시작해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단연 인도문명과 중국문명을 떠올리고, 여기에 상좌불교나 이슬람 문명, 그리고 서구문명을 생각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범세계적인 주요 문명들이 동남아에 중첩적으로 유입되어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동남아를 다양성의 세계로 간주할 수 있는 충분한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동남아를 외부문명의 혼합세계라고 규정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이 중에서도 인도와 중국 문명은 동남아 세계의 구도를 성립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극단적으로 이 두 문명에 의해 성립된 것이 동남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20세기 초부터 주로 고고학적 유물과 비문 연구에 중

고 있다.

점을 둔 프랑스(하노이 중심의 극동학원), 네덜란드(암스테르담의 왕립열대연구소) 학자들은 ‘동남아시아’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 이 지역을 인도와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도화와 중국화의 개념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남아의 인도화란 6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힌두교를 핵심으로 하는 인도 세계의 문화가 동남아시아에 도래하여, 인도세계와 동남아세계가 일체화하는 문화적 세계가 성립했던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도가 끼친 영향 가운데 무엇보다도 국가편성의 원리에 작용하였다는 사실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프랑스 학자 세데스(G. Coedès)는 1948년에 출판된 『인도차이나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인도화된 국가들』에서 인도의 영향을 인도화(Indianization)⁶⁾라는 용어로 설명하면서, 왕권사상, 힌두·불교적 의례, 뿌라나(Purāṇa) 신화, 다르마샤스트라(Dharmaśāstra), 산스크리트어의 사용 등 5가지의 문화요소가 한 묶음으로 동남아에 유입되었다고 한다(Coedès 1971:15-16).

인도의 영향을 국가형성 원리라는 형태로 이해한다면, 거기에는 일종의 사상 체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사상체계를 지탱하는 여러 조건이 일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인도 문화를 한 묶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때의 묶음이란 일련의 조직화된 문화군(organized culture)이라고 세데스는 규정하고 있다(Coedès 1971:15). 엄밀한 의미에서 인도화는 기본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그 조직화된 문화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카스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6) 세데스는 1948년 그의 저서에서 프랑스어인 ‘Hindouisésion’(인도화)을 사용하였는데, 1964년 개정판에서는 ‘인도화’의 정의에 ‘Sanskritisésion’(산스크리트화)이라는 말을 더하고 있다. 이는 1950년대 인도에서 ‘산스크리트화’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세데스는 이러한 논쟁을 답습하여 ‘인도화’란 내용적으로 ‘산스크리트화’와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가필하였던 것이다. 그가 ‘인도화’의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의 산스크리트화라는 의미를 띤 인도화의 전형적인 예로는 역시 앙코르제국의 데바라자(Devaraja, 신적인 왕)라는 개념으로, 강력한 왕권을 지탱하는 사상이 있고서야 비로소 위대한 종교적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는 이념의 배경이 된다. 동남아 왕조국가의 왕권 사상과 개념에 대한 자세한 것은 Heine-Geldern(1942)을 참조할 것.

동남아 인도화의 특징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카스트제도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구제론이라 할 수 있는 마누법전도 당연히 동남아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데스가 주장하는 인도화, 즉 산스크리트화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13세기의 위기'(Coedès 1967:119-134) 이후에도 그의 인도화 개념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13세기 이후로 동남아에서 산스크리트문화는 서서히 쇠퇴하고, 대륙부에는 상좌불교가, 도서부에는 이슬람화가 진행된다. 또 하나, 인도화된 국가들에 의하여 전파된 인도화의 경우인데, 가령, 미얀마(버마족의 버강 왕조)는 인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지 않고, 하부지역의 몽족의 인도화된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인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타이족의 크메르 문화의 수용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렇게 동남아의 인도화는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그 내용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인도의 영향 못지 않게 동남아 성립 초기부터 중국의 영향도 매우 컸다. 인접한 중국의 내부변화나 역대 왕조들의 남양에 대한 관심은 동남아의 정치적, 상업적, 사회·문화적 조건에 직접, 간접적으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세데스도 1962년 그의 저서 『인도차이나 반도의 문명사』(Coedès 1967)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중국의 영향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영향은 대체로 3가지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기층문화 위에 1000년에 걸쳐 직접적인 정치 지배를 받고, 독립 후에도 상층문화로서 중국문화의 영향을 질게 받은 베트남의 경우는 다른 대륙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둘째로, 동남아 일원에 걸쳐 기원전후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문명과 정치·경제적 대국인 중국에 대한 많은 동남아의 국가들이 맺은 관계, 이른바 조공무역과 관련된 문제이다. 동남아에 있어서 조공관계는 결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국제질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공관계는 화이(華夷) 질서라는 이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상대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로 재검토해야 할 여지가 많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보는 조공관계가 단순한

통치의 주종관계로만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동남아의 경우에는 우연히도 조공관계가 지배적인 동아시아와는 달리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도 존재하는 등 복수의 통치원리가 조공관계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중국과 동남아시아간의 통상관계를 규정하는 조공무역체제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濱下 1997). 그것은 통치의 형식으로 표출되는 조공관계 그 자체를 지탱하는 교역 네트워크이며, 조정(朝廷)도 하나의 경제주체로 참가하여 조정간의 공물(貢物)과 회사(回賜)의 교환이 이뤄지며, 여기에 민간무역도 참가한다는 중층적이며 동태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조공관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대항해시대의 전후, 유럽의 진출이후 동남아 각지에 이주하여 중국인 사회를 형성하여 동남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연구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어 버린 화교·화인의 문제이다.⁷⁾ 특히, 유럽의 진출과 더불어 동남아로 이주한 외래동양인(주로 중국인과 인도인)은 동남아 사회구조를 현격히 바꾸어 놓았다. 퍼니벌(J. S. Furnivall)이 주장하는 식민지의 복합사회(plural society, Furnivall 1967)의 양상은 동남아 전체를 특징짓는 독특한 사회구조였다. 이런 점에서도 화교·화인의 문제는 오늘날의 동남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보편적 이슈이다.

내부세계의 특징

동남아에 전래되어 많은 영향을 끼친 외부문명과 달리 그 내부세계의 관점에서 동남아라는 지역에 하나의 공통적인 문화가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동남아라는 지역은 하나의 인식 대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의 민족분포 하나만을 보아도 그 대답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동남아는 역시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공통적인 것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

7) 화교·화인의 동남아 진출과 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이 중에서 비교적 폭넓은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FitzGerald(1993)를 참고할 것.

인 생각일지 모르겠다. 따라서 모자이크 모양처럼 작은 세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동남아의 본질로 비쳐진다.

하지만 그러한 다양성은 결과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역사적, 생태적인 변화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발달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본질은 의외로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⁸⁾ 내부세계의 다양성이라는 논리는 동남아라는 생태환경 속에서 민족집단의 경계를 초월하는 특유의 공통적인 문화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비교적 외래문화와의 접촉이나 영향을 받지 않은 고유의 기층문화(Infra-Culture)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의외로 동남아의 기층적인 문화적 특성은 상당수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바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해역문화, 운남, 베트남 북부, 태국 동북지역 그리고 도서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동손문화로 대표되는 청동기문화,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광경을 제공하는 농경문화, 대종교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속적인 신앙체계로서 자리잡고 있는 정령숭배, 전통적 사회를 지탱하는 규범으로서의 관습법 등은 대표적인 동남아의 기층문화이다.

청동기문화는 현재의 동남아에 대한 존재 근거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헤거(F. Heger)는 1902년에 『동남아시아의 고동고(古銅鼓)』라는 저서를 통하여 동남아에서도 기원 1세기경에 청동기가 제작되었음을 밝혀 냈다. 또한, 아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헤거 1형 동고가 현재의 동남아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이네-겔더른(Heine-Geldern)도 1930년대에 동손문화로 대표되는 청동기문화의 계통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문화의 보편성에 관한 가설을 전개하였다.

8) 동남아 내부세계의 역사적,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 고전적 작품으로는 각각 Benda(1962)와 Embree(1950)를 참고할 것. 이들의 주장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다소 오래되고 비평받을 소지가 많지만, 그래도 동남아의 내부적 특질을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꼭 읽어봐야 할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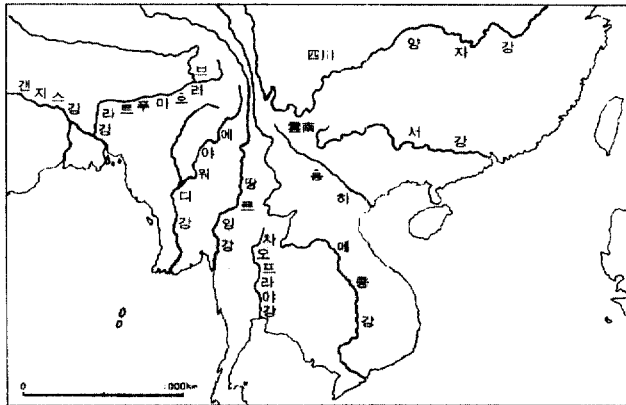
<그림 2> 헤거 1형 동고의 분포도 石井·櫻井(1985:31)에 수정을 가함

청동기문화 외에도 최근에는 동남아의 고대 문화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층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그밖에 벼농사, 정령승배에 있어서도 동남아 지역의 전반에 걸친 보편적 문화의 양태(농작 방법이나 기술, 의례 등)를 찾아볼 수 있어 동남아의 고유성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되고 있다.

청동기문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운남(雲南)지역이 동남아 기층문화의 형성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실상 운남 지역은 동남아 대륙부의 하천들의 상류지대로서 고대로부터 이러한 하천의 수로를 따라 문화를 전파하는 주요한 경로가 되었음을 <그림 3>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지역은 동남아의 청동기 문화 외에도 오늘날의 동남아 거주 민족들의 이동경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북부지역에 이르는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운남지역은 동남아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결코 단순히 중국 내의 지역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대국가의 경계 개념으로는 이 지역을 동남아와 연계하여 고려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그림 3> 운남의 지형적 위치



동남아의 내부세계의 특질을 규정하는 예로서 언어사회의 측면을 고려해보자. 동남아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의 언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국어와 지역어, 여기에 공통어인 영어나 중국어 등이중 또는 다중 언어상황이 매우 자연스럽게 전개된다. 다시 말하면, 동남아 사회에서는 개인이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 구성의 사회구조 자체가 개인에게 다중언어⁹⁾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미얀마의 동북부 고원지역에 거주하는 까친족(Kachin)의 경우, 그 중에서도 마루(Maru)어를 모어(母語)로 하는 까친족은 일상생활을 위하여 공동체의 공통어인 징포(Jinghpaw)어, 행정·교육면에서 미얀마어, 이웃 산족과의 경제적 교환을 위하여 산어, 혹은 그가 개종한 기독교인이라면 영어, 중국인과의 교역을 위하여 중국어 등을 구사해야만 한다. 마루어가 모어인 이 까친족은 적어도 3개에서 많게는 6개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회구조 속에 놓여있는 셈이다.

동남아처럼 한 국가에 다양한 민족·언어집단이 공존하는 경우에 공통어를

9) 동남아의 다중언어사회의 특징에 관한 자세한 것은 박장식(1998: 35-40)을 참조할 것.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중심부의 민족이 다수를 점하는 대륙부의 경우에는 국어의 결정에 어려움은 없었다. 미얀마어, 타이어, 베트남어, 라오어, 크메르어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어가 공용어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사회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언어구사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은 변함 없다. 소수민족의 경우에도 언어 문제를 민족집단의 정체성 확보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도서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자바어의 사용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교역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도서부의 공통어(*lingua franca*)가 된 말레이어가 국민 통합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국어로 채택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총인구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말레이인의 언어를 국어로 채택하여, 중국인, 인도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리핀에서는 4개의 주요 지역어 중에서 따갈로그어를 기초로 한 필리핀어가 국어로 되어 있지만, 오히려 영어가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더욱 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외견상으로 보아 동남아 각 국가들의 언어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낳은 다중언어사회의 면모를 충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복수언어 사용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대체로 국어, 공용어를 둘러싼 논쟁이 의외로 심하지 않다.

IV. 고유성과 관련성

동남아를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것을 전체 속의 개별적 특성을 지닌 부분으로 볼 것인지, 개별적 특성의 부분이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길 것인지에 있다. 일반적으로 생태환경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자의 것, 즉 개별적 특성, 즉 고유성에 중점을 두고 경계를 그으려는 경향이 짙다. 이들은 생태환경에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체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응 형태는 생태 기반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고 믿는다. 환경결정론이라고도 부를 만큼 생태환경을 중요시 여긴다. 이는 정치학자들이 국민국가의 단위를 인식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과 거의 비슷한 양상이다. 이에

비해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인 전체의 흐름을 중요시 여기는 쪽이 바로 네트워크적인 관련성을 강조하는 쪽이다. 외래문명의 도래와 그 수용의 방법 및 대항해시대에 있어서 활발한 교역관계의 성립, 그리고 오늘날의 아세안과 같은 경제블록의 등장은 동남아적인 교류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고유한 생태환경과 인간의 적응

동남아의 생태 환경은 지형, 기후, 토양, 식생(植生), 농업경관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생태환경에 주목하고 있는 학자들이 동남아세계를 하나의 지역단위로 묶지 않으려는 의도에는 이 같은 다양한 자연조건에 기인하는 바 크다. 환경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이나 생태시스템(ecosystem, Geertz 1963)은 이러한 관점에서 파생된 논리들이다.

동남아의 북부에는 산지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차 고도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구릉과 평원으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대륙부의 주요한 지형적 특징이다. 여기에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 있다. 더욱 아래로 내려가면, 적도 아래의 바다에 흩어져 산재하는 도서부가 있다. 도서부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가 있다. 산지, 구릉, 평원, 섬으로 변화되는 지형구역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생태구역(산지부, 평원부, 도서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동남아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두 개의 생태구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델타부는 평원부와 연속 상태의 구역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에야워디강, 메콩강, 홍하, 차오프라야강 등 대하천의 하구부에 거대한 침전 점토로 구성된 독특한 공간이다. 이 지역은 극단적인 저지대이고 수목이 거의 없는 지역이어서 하나의 생태구역으로 구별하는 것이 좋다. 한편, 도서부에서는 해발 1천 미터를 넘는 고산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고산부는 적도 아래에 위치하면서 열대다우림의 식물이 성장하지 않는 냉랭한 기후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별도의 생태구역으로 구분해야 한다(大林 1987: 20-22). 결국, 아래의 <그림 4>에서처럼 동남아는 5개의 생태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생

태구역마다 특유하고 고유한 생태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단순히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동남아의 전체성에 관한 논점은 자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림 4> 동남아의 생태구역

* 출처: 大林(1984: 21)

기후의 패턴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체적으로 대륙부는 우기와 건기가 확연히 구별되어 반복되는 몬순(monsoon)기후대이고, 도서부는 습윤열대기후인데 대륙부와는 달리 연중 강우량이 높다. 물론, 대륙부의 경우도 지형의 구조에 따라 기후의 패턴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산지와 델타 지역은 각각 우기를 맞이하는 생활양식이 다르다. 식생이나 농업 경관의 차이도 두드러진다. 가령, 델타지역은 우기 때에 수도(水稻, wet rice)의 한 종류인 부도(浮稻)를 이식하여 재배한다. 육도(陸稻, dry rice)가 주류를 이루는 산지세계의 모습과는 전

혀 다르다.

침수된 농지에서 재배하는 수도의 한 종류인 부도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판을 내어 싹을 낸 다음, 강우로 인하여 델타의 농지가 침수하게 되면, 하천의 바다에 모를 심어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수확기에는 물위로 자란 부분만 잘라 거둔다. 이에 비해 육도는 벼농사임에 틀림없으나 밭 상태의 농지에 재배하는 벼를 지칭한다. 수도와 육도의 재배는 각 지역의 독특한 생태환경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의 종족성을 규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미얀마 북부 고원지역에 거주하는 산족(Shan)과 까친족(Kachin)의 종족성 경계 구분으로 수도와 육도의 경작은 매우 중요하다. 리치(E. R. Leach)에 따르면, 그 지역에 있어서 산족의 정체성은 불교와 수도 경작이라는 요소로 성립된다고 한다(Leach 1977:29-32). 즉 까친족은 예외 없이 화전에 의한 육도 경작을 생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수도 경작을 한다면, 이는 까친족의 종족성을 상실하고 산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동남아를 대륙부와 도서부로 구분하는 것은 그 생태적 환경이 자못 다르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지형적 구분은 동남아를 전체로 묶어 생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지형의 구조에 따라 생태환경에 적응하는 양상이나 풍토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상이한 각 풍토는 한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지형적 유사성을 띤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태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남아의 동질성을 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거주시설의 전통이 있다. 지역의 생태환경과 더불어 각각의 고유한 지역성을 거기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옥에는 동남아의 공통적인 형태가 존재한다. 지면에서 올라온 고상(高床)가옥이 바로 그것이다. 고상식 가옥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지만, 동남아의 경우,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예외가 있다. 도서부의 자바(자바의 중부와 동부), 마두라, 발리 등에서 지상식의 가옥이 발견된다. 하지만, 9세기에서 14세기에 건축되었던 힌두사원의 벽에 새겨진 부조에는 고상식 가옥이 새겨져 있지만, 지상식 건물은 찾아볼 수 없다. 자바에도 옛날에는 고상식 건물이 일반적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아마도 남인도가 지상식 가옥 형태를 띠고

있어 당시의 상호 관계를 중시한다면 인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布野 1996:29).

동남아는 한마디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지역이다.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기술적 적응의 대표적인 예로 농업을 들 수 있다. 농작 방식의 유사와 차이는 생태환경 구역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만큼 동남아에서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역의 특질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미인 것이다. 특히, 동남아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적응방식은 매우 독특하며, 이를 통해 고유의 지역성을 발견하는 도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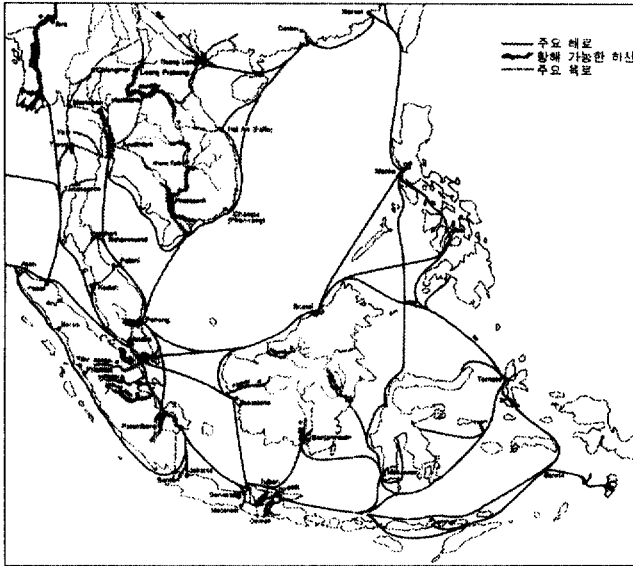
인간의 거주를 가능케 하는 적지(適地, congenial habitat)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토양의 질, 물의 유무, 교통의 편리, 환경 이용의 가부, 풍토병의 유무, 종교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자연적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핵심부, 준핵심부, 주변부, 기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적지의 개념은 절대 고정 불변적일 수 없고, 주변 환경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령, 동남아 고전기에 성립한 국가들의 핵심지역은 거의 예외 없이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얀마의 버강 왕조, 태국의 수코타이, 아유타야 왕조, 캄보디아의 앙코르 왕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15세기 중반 이후 대항해시대가 시작되고, 유럽 세력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핵심지역은 하천의 하류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했던 델타부가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근대 이후부터는 핵심영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네트워크형의 교류·관련성

동남아는 고대로부터 산지와 하구의 소규모 지역을 연결하는 상업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어 온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해역세계를 비롯한 내륙세계에 이르기까지 교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망의 형성은 동남아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단순한 동서교역의 중계지점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자립성을 지닌 강력한 교류성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 바로 동남아세계인 것

이다. 해역세계와 내륙세계의 교역 거점에 위치한 국가들을 각각 항시(港市), 역시(驛市)국가로 부르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네트워크형 교류성에서 파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데스가 말하는 13세기 위기에서 탈피한 동남아의 각 지역은 대항해시대(15세기~17세기)를 통하여 오늘날의 동남아와 거의 유사한 구도를 띠게 된다.¹⁰⁾

<그림 5> 동남아의 해로·육로 네트워크



* 출처: Reid(1993:60)

10) 동서교역의 중계지 또는 교역물품의 공급지로서의 동남아를 네트워크 중심의 해역 세계로 분석한 고전적 저서로 Hall(1985)을 참조할 것.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근대 이전의 해역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Reid(1988; 1993)를 참고하고, 이슬람과 인도양의 교역권에 관해서는 Chaudhuri(1985)를, 중국과의 교역관계는 濱下(1990)를 각각 참고할 것.

네트워크사회라는 측면을 강조하면, 동남아는 프론티어적인 성격이 강한 도시공간과 개척공간밖에 없다고 해도 과장은 아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중심과는 관계가 없는, 강한 중심이 없는 사회, 중심이 있다고 해도 강력한 중심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회라는 의미이다. '중원(中原)문화'를 바탕으로 구심적인 중심사회인 중국과는 달리 작은 단위가 상호 관계를 맺음으로써 위의 <그림 5>에서 나타난 바대로 그물망처럼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사회'인 것이다(立本 1996: 235).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인도문명, 중국문명, 이슬람문명, 서구문명 등 외래문명이 동남아에 전래되어 내부세계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생태적 제반 조건을 초월하여 동남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대한 시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봐도 좋을 것 같다.

V. 맺는 글

'동남아시아'라는 용어의 존재 그 자체는 동남아라는 지역 또는 세계의 존재를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19세기 또는 20세기라는 정치적 편의주의의 시대가 낳은 단순한 자의적 호칭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강대국이 아니라면, 이러한 광역적 개념을 이해할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동남아시아'라는 용어에서 비롯되는 지역개념은 편의적, 임의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쉽게 말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동남아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구별될 수 있는 이 지역의 부분적, 개별적인 고유성과 개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 실제적인 10개의 국가가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즉 하나의 공동체(구체적인 예로 ASEAN 10)로 만들고자 하는 과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지시간 역사 속에서 '동남아시아'라는 세계가 분명히 존속해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

이기도 하다. 이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간의 인식 변화가 있겠지만, 결코 부정될 수 없는 존재론적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동남아를 인식대상으로 삼아왔던 논의의 내용을 대비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결국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전체(하나의 인식단위)로서의 동남아는 실재하며, 지속적인 구조—물론, 부분적 변형과 변화는 있었지만—로서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실체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모자이크 형상처럼 부분적인 것의 집합이든, 전체 속의 개성적인 부분의 돌출이든 간에 인식 대상으로서의 전체론적 시각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동남아를 연구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주권국가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동남아의 성립을 고려하는 ‘주권국가주의’가 있고, 동남아의 고유한 성립 과정을 탐구하여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지적인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矢野 1992: 3). 사실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동남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현대적 시각에 머물 수밖에 없어, 진정한 의미의 ‘동남아시아학’의 정착을 위하여 동남아가 지니고 있는 시간과 공간적 함의를 살펴보는 일이 시급히 요청된다.

<참고문헌>

- 박장식. 1998. 동남아시아 언어의 다양성과 그 구조-계통, 문자, 다언어사회. 『아시아지역연구』 1. 17-46.
- Benda, H. J. 1962. The Structure of Southeast Asian History: Some Preliminary Observations.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3(1). 106-38.
- Braudel, F. 1995. 『文明の文法I』 松本雅弘 譯. 東京: みすず書房.
- Chaudhuri, K. N. 1985. *Trade and Civilization in the Indian Ocean: An Economic History from the Rise of Islam to 17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edès, G. 1971. *The Indianized States of Southeast Asia*. Trans. S. B. Cowing. Hawaii: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 _____. 1967. *The Making of South East Asia*. Trans. H. M. Wright.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mbree, J. F. 1980. Thailand: A Loosely Structured Social System. Hans-Dieter Evers, ed. *Sociology of Southeast Asia: Readings on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164-71.
- Emmerson, D. K. 1984. Southeast Asia: Whats in a Nam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5(1). 1-21.
- Furnivall, J. S. 1967. *Netherlands India: A Study of Plur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tzGerald, C. P. 1993. *The Southern Expansion of the Chinese People*. Bangkok: White Lotus.
- Furnivall, J. S. 1948. *Colonial Policy and Practice: A Comparative Study of Burma and Netherlands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ertz, C. 1963. *Agricultural Involution: The Process of Ecological Change in Indonesi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 Press of California.
- Halib, M. and T. Huxley. Eds. 1996. *An Introduction to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Hall, D. G. E. 1981. *A History of South-East Asia*. London: Macmillan.
- Hall, K. R. 1985. *Maritime Trade and State Development in Early Southeast A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eine-Geldern, R. 1942. Conceptions of State and Kingship in Southeast Asia. *The Far Eastern Quarterly*. 2. 15-30.
- Hiebert, M. 1995. Wizard of Oz: Australia's Evans Redraws the Map of Asi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58(33). August 17. 26.
- Leach, E. R. 1977. *Political Systems of Highland Burma*. London: The Athlone Press.
- Luhman, N and J. Bednarz. 1995. *Social Systems*. Trans. D. Baecker and E. M. Knod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urcell, V. 1951.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Reid, A. 1988.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ume On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ume Two*. Chiang Mai: Silkworm Books.
- Steinberg, D. J. Ed. 1987. *In Search of Southeast Asia: A Modern History*. Sydney: Allen & Unwin.
- 布野修司[Funo, S.] 1996. 高床式住居—住居の技術の起源と傳播. 『綜合的地域研究』第14號. 28-30.
- 上智大學アジア文化研究所 編. 1992. 『入門東南アジア研究』東京: めこん.
- 濱下武志[Hamashita, T.]. 1990. 『近代中國の國際的契機-朝貢貿易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_____. 1997.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東京: 岩波書店.
- 石井米雄, 櫻井由躬雄[Ishii, Y. & Y. Sakurai]. 1985. 『東南アジア世界の形成』東京: 講談社.
- 三谷[Mitani, Y.]. 1984. 東南アジア諸言語の系譜. 『東南アジアの民族と歴史』大林太良 編. 東京: 山川出版社.
- 應地利明[Oji, T.]. 1996. 『地理學概論』東京: 朝倉書店.

- 高谷好一[Takaya, Y.]. 1993. 『新世界秩序を求めて』東京: 中公新書.
 _____ . 1996. 『「世界單位」から世界を見る地域研究の視座』京都: 京都
 大學學術出版會.
- 立本成文[Tachimoto, N.]. 1996. 『地域研究の問題と方法』京都: 京都大學學
 術出版會.
- 山影進[Yamakage, S.]. 1994. 『存立と公存の國際理論』東京: 東京大學出版
 會.
- 矢野暢[Yano, T.]. 1990. 『東南アジア世界の構圖』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_____ . 1990. 地域像を求めて-<外文明>と<内世界>. 『講座東南アジア學
 第一卷 東南アジア學の手法』矢野暢 編. 東京: 弘文堂. 1-30.
 _____ . 1992. 東南アジア學とは何か. 『講座東南アジア學 別卷 東南アジ
 ア學入門』矢野暢 編. 東京: 弘文堂. 1-26.
 _____ 編. 1997. 『지역연구의 방법』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옮김. 서울:
 전예원.
 _____ 編. 1999. 『지역연구와 세계단위론』부산외대 아시아지역연구소
 옮김. 서울: 전예원.

The Perceptual Contrasts of the Structure of Southeast Asia

Park Jang-Sik

The term Southeast Asia has become a widely accepted expression in scholarly literature throughout the international societies since World War II. Its usage did perhaps happen to arise from convenience, that is, the need to designate what could be argued as constituting a geographical entity. At a first glance, beginners of Southeast Asian Studies may criticize the term Southeast Asia as inaccurate and indefinite in its scope. Considering its diversity in various aspects, Southeast Asia can be perceived as just being a simple geographical concept.

The enthusiasm of the importance of Southeast Asia, however, has been emerging with great force in recent international atmosphere. The most significant aspect is the complete formation of ASEAN with total 10 countries. This means that the concept of Southeast Asia in totality was given a great impetus by Southeast Asian themselves. Besides this political aspect, we can also offer consideration of the other reasons.

This paper will examine in the long run the concept of South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total entity. The value of its concept will be assessed from a contrastive perspective of the foregoing evidence: the historical perceptions of the term Southeast Asia, the intrinsic and extrinsic attributes on civilizations, and ecological backgrounds. In our conclusion we will assert that there exists

validity of the concept of Southeast Asia as not individual parts, but a whole entity.

<Key Words>

Southeast Asia, Perception, Monsoon, Ecology, Indianization, Network